

#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해야

(정신 분열병이란 무엇인가)

정신 분열병(精神分裂病)은 그 원인이나 증상, 병의 진행 과정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주요 정신병이다. 이 병은 망상, 환각, 감정의 장애 그리고 심한 행동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병적 과정을 거친다.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확실한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이 질병이 전에 생각해 왔던 것처럼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이상, 즉 뇌신경 전달 물질의 혼란이 중요한 병리적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증후군(症候群)’이라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물론 심리적인 갈등이 증상의 형성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병의 발병률은 1/1,000정도이며 유병률(현재 앓고 있는 환자의 수)은 0.3%정도 된다.

이 병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일정 비율을 차지하며 지속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정신병에 관한 언급은 중국, 이집트, 인도,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을 꽃 피웠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중 최초의 기록은 구약성서의 사울과 데이빗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정신병을 ‘몸밖의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여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든가 혹은 ‘전생의 죄업 때문’이라든가 또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정신병에 대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에 반해 로마제국의 멸망 후 중세에는 정신병을 마녀나 귀신들의 부활로 여겨 불에 태워 죽이거나 쇠고랑을 채우고 감금하는 등 ‘마녀 사냥’의 암울한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 후 18세기말 프랑스 혁명 후 필립 피넬(Philip Pinel)에 의해 인도적인 치료법이 도입되어 정신 질환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많은 정신 질환자들은 억울한 살육을 당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았다.

19세기말과 20세기에 걸치는 동안에는 프로이드, 융, 크레펠린, 브로일러 등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 정신과학이 체계를 이루어 가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정신 약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정신병도 ‘약령이 썩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질병과 마찬가지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1952년 속칭 빨간약, 씨피 또는 씨피젯이라 불리는 클로르프로마진이 처음으로 임상에 사용되어 강한 항 정신병 효과를 인정받은 개가를 올린 이후 지금은 수백 여 종의 약물이 정신분열병에 정확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을 위해 개발되었고 또 계속 개발되고 있다.

‘정신병’이란 용어는 그 질병을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농담 또는 육설의 의미로 더 부각되어 있다. 또 중세 서양의 암울했던 ‘마녀사냥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우리나라의 민간요법은 정신병 환자에 대해 ‘복숭아나무로 매질하기’, ‘경 읽기’, ‘굿하기’ 등 현대적 관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법(?)으로 정신 질환자들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해왔으며, 그런 비 의학적인 관행이 아직도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때려서 죽인다”, “독한 약을 먹여서 바보로 만든다”라는 속설을 두려워한 나머지 치료의 적기를 넘겨 버린 환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공공연히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낙후된 민도(民度)를 반영하는 듯 하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독한 약을 쓰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굿을 하라”며 받는 굿 값이 최근에는 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사람들을 속이는 사행(邪行)이라 치더라도 참으로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지구 궤도에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21세기의 문턱에 선 지금에도 십 년 이상 방에만 가두어 놓았던 분열병 환자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가 종종 있다. 첨단 의학이 발전하고 그 이용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지만 정신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이상을 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